

고양이, 개 회충이 우리몸속에도 살고있다

겨울철에도 꿈틀거리는 기생충들

겨울철에도 요충, 개회충, 고양이 회충, 아니사키스, 광절열두조충 등 많은 기생충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변후,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어류는 충분히 익혀먹는 등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유재숙

山野를 붉게 물들여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던 단풍은 어느덧 낙엽이 되어 발 밑을 구르고 동장군의 세찬 입김은 만물의 성장을 일시 멈추게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의 몸속에는 갖가지 기생충이 꿈틀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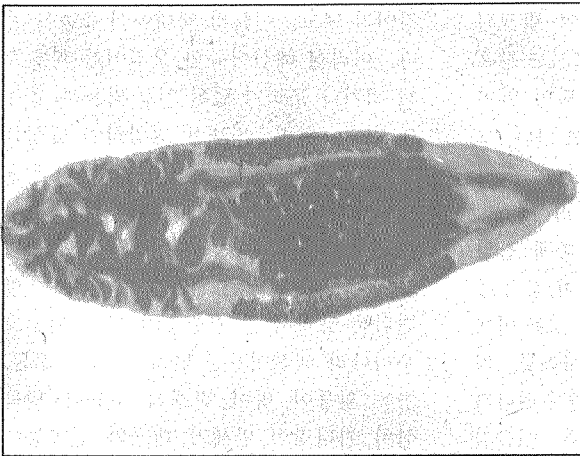
첫째로 요충이다. 최근에는 꾸준히 계속되는 기생충 박멸사업으로 인해 회충, 십이지장충 등 장내에 기생하는 대개의 기생충의 감염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요충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요충은 주로 어린 아이의 대장에 기생하며 야간에 암컷이 항문으로 기어나와 산란(産卵)을 함으로 하여 항문 주위를 자극하여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어 긁게되고 이로 인

하여 어린이들은 불면증, 정서적 불안정 주의력 산만 등 신경증을 보이며 때로는 식욕감소와 체중감소를 동반하기도 한다. 요충은 성충 한마리가 10,000개의 충란을 산란할 수 있는데 이것은 34~36℃의 온도에서 6~7시간이면 충란안에 유충이 생겨 감염이 가능한 감염형 충란이 되며 이러한 충란이 묻어있는 손을 입에 가져가면 감염이 이루어진다. 또한 요충란은 항문 주위를 긁을 때 떨어져 나와 의류나 침구를 오염시키므로 가족간의 감염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또한 국민학교 교실의 먼지에서도 요충란이 검출되므로 요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변 후나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가족전부가 함께 검사한 후 치료 받아야 한다. 특히 요충의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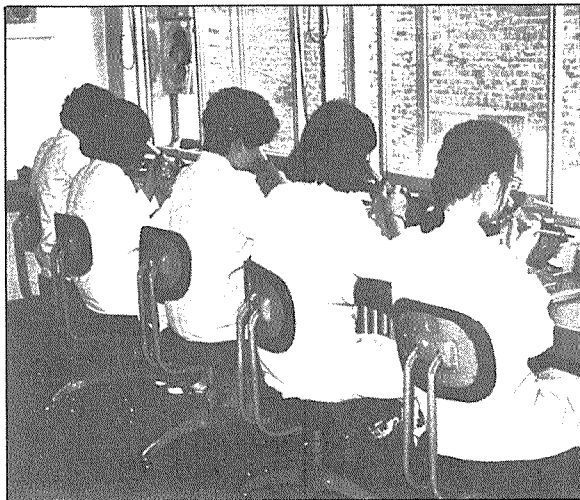
염여부는 대변검사로는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항문 주위에 있는 충란을 보기 위하여 항문 주위의 주름살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방법을 써야 하므로 전문기관에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개회충과 고양이 회충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며 또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므로 집안에 들여놓고 사람과 함께 기거, 숙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애완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기생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개회충과 고양이회충에 의한 유충내장이행증이다. 개, 고양이 회충은 개나 고양이에서는 장에 기생하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인체는 살기 좋은 숙주가 아니므로 유충이 간을 비롯한 각 장기를 침범한다. 또한 유충은 성충으로 되지 못하므로 충란을 배출하지 못한다. 이러한 질병의 일례를 들면 1년 6개월된 백인 남자아이가 보름전부터 밥을 먹지않고 미

열이 있으며 마른 기침을 하여 병원에 왔다. 아이는 전에는 건강하였다 한다. 여러가지 검사 특히, 기생충란을 보기위한 대변검사와 결핵검사에서 음성이고 혈액 검사에서 호산구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었고 흉부X-선 사진에서 반상의 침윤성 음영이 보였고 촉진상 간이 커져있음을 알았다. 간조직 검사에서 괴사된 소부위가 보여서 이 부위를 조사하니 개회충 유충을 둘러싼 육아종이 보였다. 아이의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는 흙장난을 하며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미국의 경우 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이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많이 있으나 확진을 위해서는 간 생검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정확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에 있어서 개회충의 감염률이, 최근 조사에서 9~21%이므로 환자가 많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이 질환은 1~8세의 어린이에서 호발되므로 개, 고양이 회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 미만



개, 고양이 회충에 의한 질환은 특히 1~8세의 어린이에게 많으므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매월, 6개월이상은 2개월마다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닷고기에는 기생충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해산어류 중에 아니사키스라는 유충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 기생충의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어류, 오징어를 생식해서는 안된다.

의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매월, 그보다 큰 것들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놀이터에 개나 고양이가 배변하는 경우 이것을 제거하여 파묻고 고양이가 배변하기 쉬운 모래통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덮어 두는 것이 좋다.

세째로는, 아니사키스이다. 식품에 대한 기호변화로 요사이 생선회를 즐기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생충 질환이 있다. 민물고기는 간흡충을 옮긴다는 사실이 잘 인식되어 있어서 이를 날로 먹는 경향은 줄고 있다. 그러나 바닷고기에는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 날로 먹거나 조리가 덜된 바다생선을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아니사키스는 모든 이에 게 생소한 기생충이므로 발생사례를 기술한다. 27세의 비교적 건강한 우리나라 여성이 일주일 전부터 목구멍에 이물감

을 느끼고 두통이 있으며 청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왔다. 이 여성은 증세가 나타나기 하루전날 김장을 준비하면서 오징어를 양념에 무쳐 날로 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김진하는 도중 구개편도에서 4cm 길이의 아니사키스유충을 발견하였다. 아니사키스는 원래 바다 포유동물인 돌고래, 고래, 물개등에 기생하는데 충란을 바닷물에 내보내면 이것을 해산어류나 오징어가 먹고, 이들의 체내에서 유충이 된다. 이러한 해산어류와 오징어를 회를 쳐서 먹거나 조리가 덜된 것을 먹을시 유충이 인후, 위벽, 장벽에 침입하여 급성복통, 발열, 때로는 이물감등을 나타낸다. 또한 X-선상 위궤양, 위암등과 비슷하여 오진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장궤양으로 장이 천공된 환자의 수술도중 발견된 종양에서 이 기생충이 발견 되었고 우리나라 해산어류중 넙치, 가자미, 붉돔, 참돔, 황등어, 방어, 전갱이, 고등어, 망둑, 삼치, 가다랑이, 만세기, 대구와 갈치등에



◀ 광절열두조충의 예방을 위해서는 송어, 연어, 농어류등 반감어를 잘 익히거나, -18°C 에서 하루내지 이틀동안 얼린후 먹어야 한다.

서 아니사키스 유충이 발견 되고 있으므로 감염된 사람이 많으리라 짐작된다. 이 기생충의 예방을 해산어류나 오징어를 생식하지 말고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네째로, 광절열두조충이다. 먼저 감염된 예를 들면 48세된 남자가 2~3일 전부터 심한 복통과 오심, 구토가 있고 진신쇠약이 초래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과거력에서 농어를 비롯한 종류미상의 생선회를 생식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대변 검사에서 광절열두조충란이 발견되어 치료제를 먹으니 길이가 6.8cm이고 마디가 1,800개인 충체가 나왔다. 이 기생충의 생활사를 보면 광절열두조충은 사람, 개, 고양이에 기생하며 대변을 통해 충란을 배출한다. 이것은 담수에서 부화하여 물벼룩에 먹힌다. 물벼룩 체내에서는 유충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육되며 이것은 다시 담수어(淡水魚) 또는 반감어(半鹹魚)인 송어, 연어, 농어류 등에 먹혀 물고기살속에서 더욱 성숙된 감염이 가능한 유충이

된다. 이러한 물고기를 회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시 감염되는데, 사람에서는 유충이 소장벽에 붙어서 3주후에 1mm까지 발육하여 산란을 한다. 보통 충체의 길이가 2~10mm가 되며 마디가 3000~4000개의 큰 기생충이므로 소화 불량 및 복통 설사등을 일으키며 특별히 악성 빈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기생충의 예방을 위해서는 송어, 연어, 농어류등 반감어를 잘 익혀서 먹거나, -18°C 에서 하루내지 이틀동안 얼린 후 먹어야 한다.

앞에서 몇몇의 예를 든 기생충 이외에도 겨울철에는 많은 종류의 기생충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이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방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용변후와 식사전에 손을 씻고 어류 등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